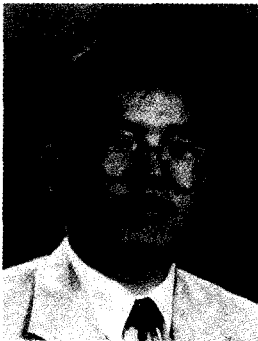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주류산업

1. 대외경제여건 변화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세계경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IMF, WEF(와튼계량경제연구소) 등 대부분의 세계경제 예측기관들은 금년에 세계경제가 작년보다 호전된 3.3~4.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호황을 구가해온 미국경제는 금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5.4%와 5.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최근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 소비심리 회복, 세계경제의 회복세 등에 힘입어 1~2%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유로화의 절하세, 역내 교역량 증가, 아시아의 경기회복 등에 따른 내수 및 투자 회복과 수출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대 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 신흥공업국들도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남미나舊소연방·동구 등 체제전환국들도 세계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 目 次 ■

1. 대외경제여건 변화
2. 대내경제여건 변화
3. 국내경제와 주류산업

크게 둔화되었던 세계교역은 지난해에도 EU의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계속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금년에는 세계 각국의 경기회복세로 인해 수입 수요가 증가하여 7%이상의 교역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각 전망기관들 교역량전망 상황 조정).

국제유가는 작년 4월 OPEC의 감산합의 이후 강세기조가 계속되어 금년 9월초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31달러, 브렌트유와 서부텍스스중질유(WTI)는 35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1년 반사이에 유가가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금년 3월 하순 OPEC의 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회원국들이 감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기 회복지속에 따라 원유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관측통들은 가을철 이후 서방국들의 난방유 수요까지 겹칠 경우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엔화는 금년에도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이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엔화 강세는 일본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엔/달러환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금년에 105엔대 전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미국경제가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는 세 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금년 들어서도 경상수지 적자, 물가상승압력 등을 고려하여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FRB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 9월 현재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는 6.5%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금리는 미국의 물가상

승률과 경기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경기연착륙 가능성이 보이면 연내에 굳이 금리를 올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대내경제여건 변화

가. 현 경기국면의 평가

한국경제는 98년 8월 경기저점을 지나 현재 70년대 이후 7번째 경기확장국면에 놓여 있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파악하는데 이용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년 8월 85.6을 나타낸 후 증가세를 지속해 왔으나 작년 9월 이후 증가속도가 둔화되어 왔으며, 금년 들어서는 5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해 왔다. 다만 6월과 7월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를 놓고 경기가 정점을 지났는지 아직 정점이 멀었는지 하는 식의 경기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경기동행지수(Coincident Index)란 고용투입량, 산업생산지수, 제조업평균가동률, 생산자출하지수, 도소매판매,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전력사용량(제조업), 시멘트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등 10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지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년들어 5월까지 나타난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하락세를 보고 이미 우리 경제가 금년 상반기중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 반면, 통계청이나 재경부는 아직 정점이 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의 논거는 경기동행지수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는 과거 평균 확장기간이 34개월(수축기간 17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확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8년 8월에 바닥을 친 경기가 현재 불과 2년 남짓한

확장밖에 하지 않았으며, 우리경제가 정보통신 산업 발전 등 미국식의 신경제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경기확장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의 근거가 되고 있다. 더구나 외환위기 후 나타난 경기저점의 골이 다른때에 비해 매우 깊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경기상승세는 좀 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대내외여건 변화 여하에 따라 확장기간이 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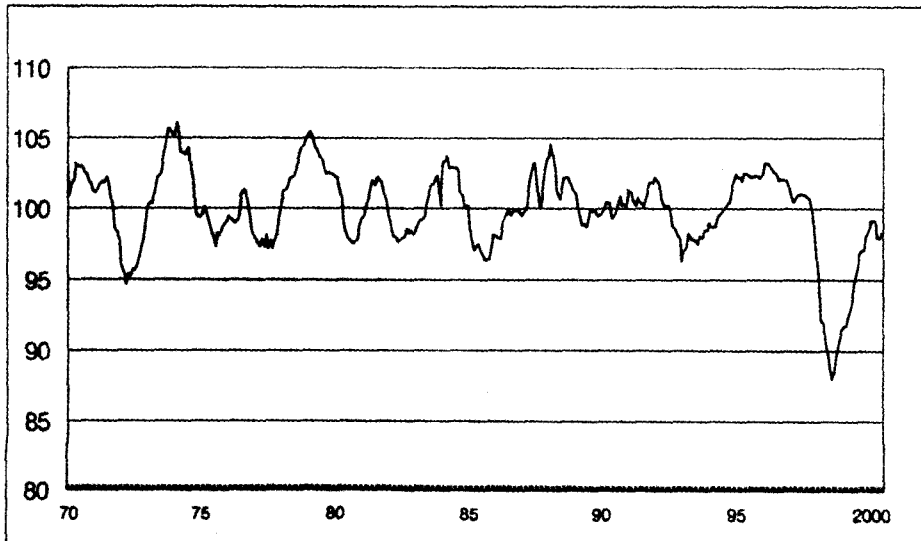
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정보·기술·지식 집약적인 산업이 급성장하고 경제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세계경기 호조가 이어질 경우 확장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악화, 반도체, LCD 등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부진과 대체상품 미개발, 유가불안, 노사관계불안 및 임금 급등 등이 나타날 경우 경기확장 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데 사용하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작년 8월까지 상승세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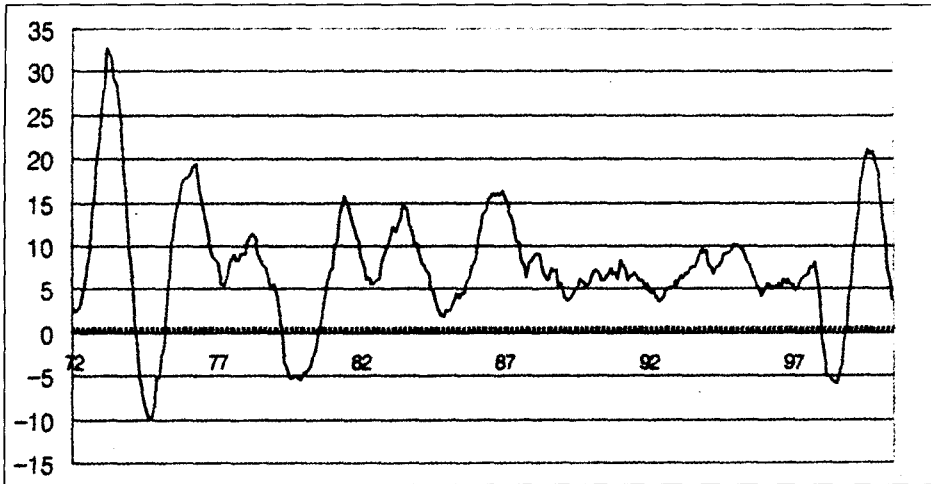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

	기 준 순 환 일			지 속 기 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 장 기	수 축 기	순 환 기
제 1 순환기	'72.3	'74.2	'75.6	23	16	39
제 2 순환기	'75.6	'79.2	'80.9	44	19	63
제 3 순환기	'80.9	'84.2	'85.9	41	19	60
제 4 순환기	'85.9	'88.1	'89.7	28	18	46
제 5 순환기	'89.7	'92.1	'93.1	30	12	42
제 6 순환기	'93.1	(96.3)	(98.8)	(39)		
평 균	-	-	-	(34)	17	(51)

동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속해 왔으나, 그 이후 다소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하락폭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제5순환기까지의 경기순환 국면에서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선행시차는 정점의 경우 평균 10.6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기정점은 빠르면 금년 말이라도 올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경기선행지수(Leading Index)는 입이직자비율, 증가재출하지수, 내구소비재출하지수, 건설용공간재 생산, 건축허가면적, 국내기계수주, 통화량, 재고관련지표, 수출신용장 내도액, 수출용원자재수입액 등 10개 지표를 종합해서 통계청이 매월 작성하고 있다.

나. 경제전망

1) 금년, 8% 후반의 고성장 예상

금년에는 경기회복세 확산으로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가, 재고투자도 플러스로 반전됨에 따라 연간 8.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2/4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전년의 높은 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탄력을 받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을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았던 데 따른 반등으로 11.1% 성장했으며, 하반기에는 6.7%의 견조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최종소비지출 중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세 확산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던 실업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소비심리가 안정되어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자본형성은 작년의 30.4% 증가에 이어 19.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4/4분기에는 97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재고투자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최근 소비 증가 등으로 재고 보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년에는 2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온 재고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는 수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 및 사무기기 등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받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형별로 보면 외환위기 후 한동안 크게 늘었던 보수·유지나 합리화투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투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재수입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설비투자의 수입유발계수가 0.3인 만큼 설비투자가 100단위 증가하면 수입도 30단위 증가하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설비투자의 향방이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장기간 침체를 보인 건설투자는 금년에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앞으로 경기확장세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증가세가 지속되거나 상업활동의 활발해지면 공업용과 상업용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점은 금년 말엽이나 내년초에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회복세는 과거와 같이 왕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기업의 설비투자중 신규 생산능력확장 투자는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능력 과잉으로 크게 늘지 못해 이와 관련된 공업용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업용의 경우도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지금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결과 이에 대한 초과수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도성장기와 같은 큰 폭의 성장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의 경우도 주택보급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양적인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목건설의 경우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나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이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후 재정적자 확대등의 여파로 정부의 예산이 넉넉치 못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1~2년간은 토목공사의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무역흑자, 97억 달러 전망

지난해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수입이 전년대비 28.4%나 증가하였으나 수출도 8.6%나 증가함으로써 239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올 들어서도 수출은 지난해 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이 예상보다도 더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흑자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올들어 8월까지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1,12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이 43%가 증가한 1,058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무역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억달러나 줄어든 66억 달러에 그쳤다.

수출의 경우 전세계적인 정보통신화 열풍으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40% 이상 급증하였으며, 자동차, 화공품, 선박 등 중화학제품의 수출도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수입도 국내 경기의 성장세 지속과 국제유가의 급등, 그리고 수출호조에 따른 부품 수입 증가 등으로 용도별 구분 없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지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국내경제의 확장세 지속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금년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97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 연간 수출은 작년보다 20.9% 증가한

1,73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절상 가능성과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강화, 임금·유가 등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일부 불안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호조가 지속될 것인데다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전자전기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증가, 엔화강세 지속 등 유리한 요인이 더욱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입은 연간으로 작년보다 36.5% 증가한 1,640억달러에 달한 전망이다.

3)금리는 소폭 상승, 원화는 절상 예상

금리는 금년에 경기확장, 자금수요확대, 물가상승,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작년에 연평균 8.86%를 나타냈던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은 금년 1월에 10.25%를 고비로 하여 지속적으로 떨어져 6월에는 9.72%를 기록했다. 상반기 평균으로는 작년의 8.16%에 비해 약 1.8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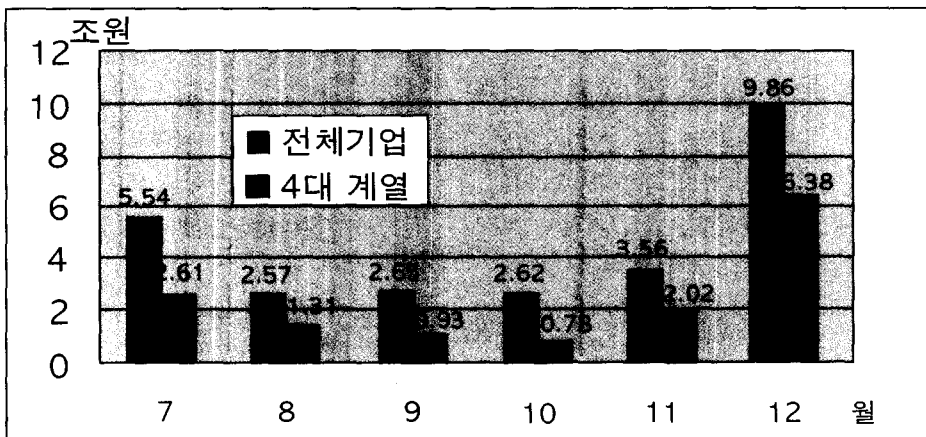
금년에는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 기대심리 등으로 약간

의 장기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8.7%에 달한 전망이고 설비투자와 소비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시중 자금수요 확대는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도산가능성 증대도 리스크프리미엄 증가요인으로 작용해 금리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회사채수익률이 10%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금사정을 보면 97년중 대량으로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가 금년 8월부터 잠시 줄어들 것이나 12월에는 다시 집중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과 채권시장의 정상화 등 구조적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연말쯤 기업의 자금난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투신사는 은행과 더불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양대축을 형성하기 때문에 투신권의 안정 없이는 금융시장의 안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투신권의 구조조정을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증권사의 경우도 그 처리방향을 분명히 하고 생존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의 투입도 실시하여 CP(기업어음) 매입 주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도 2차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자금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2차 금융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 어느 은행과 어느 은행이 짝짓기를 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추측과 불확실성이 나돌수록 시중의 부동자금이 많아지고 그만큼 기업으로 돌아가는 자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은행의 건전성 확보이다. 금년 6월에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극력 꺼림으로써 신용경색현상이 심화된데서 알 수 있듯이 은행들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BIS 자기자본비율을 점검하는 6개월마다 은행의 대출기피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주식 투자의 비중을 축소하여 주가 변동에 따른 자기자본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비용절감과 점포축소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 축소를 통한 총위험자산 줄이기보다는 자기자본을 늘려 BIS비율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98년 달러당 평균 1,395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와 자본유입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 지난해에는 달러당 평균 1,189.5원을 기록하였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평균 1,120원을 기록하였다.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와 직·간접 투자 등 외화유입의 지속 등으로 외화공급의 우위 현상이 지속될 것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08원선을 나

타낼 것이며, 연평균으로는 1,115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4) 물가 불안해질 전망

금년들어 8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하였다. 특히 6월부터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는 유가급등에다 의보수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물가는 태풍 등에 따른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과 유가상승세 지속에 따른 공업제품가격 상승,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을 3%내에서 억제하고자 하고 있지만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이의 달성도 불투명하다.

올들어 6월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생산자물가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하반기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5) 체감경기는 악화

산업활동통계나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볼 때 최근 실물경제는 완만해지고 있긴하지만 여전히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재경부와 통계청의 시각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이미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월과 8월에 크게 떨어졌다. 9월에는 반등세를 보였지만 추석명절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경우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BSI도 2·4분기에 크게 떨어졌다.

최근의 체감경기 악화 이유중 중요한 것은 지표경기가 고려하지 못하는 금융시장불안과

채산성악화다.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경우 경기를 좋게 느낄리 없다. 또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올라 생산비는 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를 제품단가 인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고 체감경기도 나빠지게 된다. 주로 물량기준으로 작성되는 지표경기는 생산비나 단가, 매출액 등 기업들의 행동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변수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체감경기 악화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기양극화다. 지표경기는 아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업종간, 기업간, 지역간에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이다. 생산의 경우 반도체, 컴퓨터 등 일부 업종은 5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공업 제품을 한자리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 선박이나 자동차 등 일부 중화학업종은 두 자리수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후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을 뿐 조립금속 등 대부분 업종은 그다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기업간 경기양극화도 심하다.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이 10조원을 넘는 최대규모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소위 '빅4'가 차지하는 비중이 50.1%이며, 나머지 기업들의 순이익을 합한것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기업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 반도체와 전자, 자동차 등 수출주력산업이 많은 수도권의 충북, 광주의 경우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섬유 등 전통산업이 많은 대구와 전남, 강원 등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양극화는 일부 업종이나 기업, 지역만이 경기호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나머지 업종이나 기업, 지역은 그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자는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체감경기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경제주체들이 실제로 체감경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생산을 축소하고 투자를 억제하는 전략을 쓰게 되며, 이는 실제 지표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개인들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면 소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표경기를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다.

3. 국내경제와 주류산업

가. 주류판매 회복세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극심한 경기침체로 주류에 대한 내수가 한동안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경영도 크게 악화된 바 있다. 특히 주류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 내수가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하며, 증시침체로 자산가치가 하락했던 시기에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특히 주류의 내수부진이 심하게 나타났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98년 가을 이후 국내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주류에 대한 내수도 전반적으로 서서히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류간, 그리고 브랜드간 회복의 명암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금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주요 주류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소주와 맥주의 경우 진로와 하이트가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2위 이하 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소주의 경우 금년초 소주세율이 35%에서 72%로 인상된 여파로 금년 상반기 판매실적이 40만 8,900kl를 기록하여 99년 같은 기간보다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에서도 소주업계의 판도는 크게 변했다. 진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시장점유율 50%를 돌파하였으나 2위였던 두산은 5위권으로 밀려나는 부진세를 보였다. 진로는 99년말만 해도 시장점유율이 40% 전후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금년들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 4월 한달만 제외하고는(49.6%), 5개월간 50% 이상을 유지하였다. 특히 참眞이슬露의 판매호조가 두드러졌다. 특정 소주회사가 반기별 이상 기간의 통계에서 전국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수도권에서는 4월 이래 90%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줄곧 2위를 유지해 오던 두산은 순환 소주 시장에서 뉴그린이 부진한 판매를 면치 못함에 따라 금년들어 점유율이 10% 미만대로 떨어지면서 금복주, 무학, 대선 등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 업계의 판매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을 보면 진로만이 13.7%의 플러스 증가율을 보인 반면, 두산 -64.5%, 보해 -36.7%, 금복주 -22.1%, 하이트주조 -47.4%, 무학 -13.5% 등은 모두 두 자리수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맥주는 금년초 주세가 130%에서 115%로 낮아진데다 금년 여름의 무더위로 금년 중반 이후 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상반기중 국내맥주 시장은 9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판도는 업계선두인 하이트맥주와 99년 카스맥주를 인수한 OB-카스맥주의 맞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99년 월별로 시장점유율 50%선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결국 49%로 마감했던 하이트는 금년들어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반기에는 54%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하이트가 시장점유율 50%를 돌파한 것은 96년 업계 1위로 올라선 뒤 처음이다. 한편 라거와 카스는 각각 31%와 1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 맥주시장이 99년 동기대비 13% 늘어난 가운데 하이트는 24% 성장을 기록했으나 라거와 카스는 각각 2.6%와 1.5% 증가하는데 그쳐 앞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주세가 인화된 위스키의 경우 주세법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중 위스키 시장은 43% 정도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3사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비슷하여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1위는 임페리얼을 앞세운 진로발렌타인으로 33.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원저와 시바스리갈을 주력으로 하는 두산시그림이 33.5%, 덤플과 하이스코트가 32.6%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박빙승부의 현상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6월말과 7월초에 각각 출시된 임페리얼15년과 원저17년의 판매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으로 주류에 대한 소비가 점차 둔화되고 특히 내년이후 경기가 본격 하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비재에 대한 내수도 점차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는 미리미리 내수둔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주류도매면허를 늘릴 예정인 것은 주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주류판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매년 3~4개로 제한했던 신규 주류도매면허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금년에 30개로 대폭 늘릴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분당, 일산 등 인구팽창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류소비량과 인구가 늘어나 신규주류도매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규면허가 허용되는 지역은 서울의 5개를 비롯해 경기 14개, 인천 3개, 경북 3개, 경남 2개, 제주 3개 등이다.

90년대 들어 정부는 주류면허를 개방하면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불법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주세법에 근거, 이를 면허제로 묶고 면허를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해 왔다. 신규면허의 신청자격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의 경우 50평 이상의 창고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이하의 지역은 창고 20평, 자본금 5,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주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업계는 상황

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정산업의 진입장벽 철폐와 주류도매업 면허 확대 등 최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 업체의 경영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주류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경쟁이 중시되고 그 결과 업계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98년 9월부터 주정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허용되고 있어 국내외업체간의 품질 및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업체는 퇴출되는 것이 주류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시대의 대세인 규제완화를 수용하면서 각자 품질개선과 가격경쟁력 향상에 매진하여 체질강화를 도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21세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주류업체들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隱逸林中無榮辱，道義路上無炎涼。

세속을 떠란 숲속에는 영예와 오욕이 없고, 도의 길 위에는
인정의 변화가 없느니라.

- 菜根譚 중에서 -